

폭풍 속의 고요, 고요 속의 폭풍: 외상을 경험한 대학생의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방어적 언어의 조절 효과

곽재석† 김형준 권선중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의 야누스의 얼굴 모델에 근거해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방어적 언어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K 대학 재학생 245명을 대상으로 외상 경험과 방어적 언어, 의도적 반추,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였다. 분석은 기술통계, 상관 분석을 실시한 다음, 외상 시점을 시점1(‘한 달 이내’부터 ‘7개월~1년 이내’), 시점2(‘1~2년 전’부터 ‘2~3년 전’), 시점3(3~10년 전), 시점4(‘10~20년 전’부터 ‘20년 이상 경과’)로 구분해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방어적 언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시점1에서는 의도적 반추가 방어적 언어의 조절 효과로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시점2에서는 방어적 언어의 조절효과가 외상 후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점3과 시점4에서는 방어적 언어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초기 대처 전략으로서 왜곡이나 자기기만과 같은 착각(방어)적 측면의 비중이 크다가 시간이 지나 적응적 성격이 커지면서 건설적인 측면을 보인다는 야누스의 얼굴 모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상 후 성장에 관한 본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외상 후 성장, 의도적 반추, 방어적 언어, 야누스의 얼굴 모델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곽재석, (3409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90(하기동)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Tel: 042-828-3300, E-mail: jaeseok3979@naver.com

DSM-5에서는 외상 사건을 ‘죽음 또는 죽음의 위협, 심각한 상해 또는 성적인 폭력을 직접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어났음을 알게 되는 것, 트라우마 사건의 혐오스러운 세부 내용에 반복적으로 또는 극단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정의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러한 외상 사건은 절망과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하고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균형을 무너뜨리며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한다(Breslau, Davis, Andreski, & Peterson, 1991; Kessler, Sonnega, Bromet, & Hughes, 1995).

외상 사건은 일반적으로 삶에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역설적으로 외상을 겪은 후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로의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이하 PTG)으로 나아가기도 한다(Calhoun & Tedeschi, 1999). PTG는 외상 경험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넘어 내적인 성장과 성숙으로의 변화로 정의되는 개념으로(Calhoun & Tedeschi, 1999; Zoellner & Maercker, 2006), 외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며 새로운 인생의 목표 설정, 의미 있는 대인관계의 변화 등 외상 이전의 적응 수준보다 삶의 질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다(Tedeschi & Calhoun, 1996).

PTG가 보고되는 시점에 대한 논의는 부분하나 보통 외상 후 대략 2년이 지나면서 정서적 고통의 감소와 심리신체적 적응과 강한 상관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전상원 등, 2015; Davis, Nolen-Hoeksema, & Larson, 1998; Ickovics et al., 2006). 물론 PTG는 외상 이전의 개인 특성과 삶에서 출발하여, 학력, 성별, 결혼 여부뿐 아니라

성격 특성에 따라 PTG가 예측되는 양상은 저마다 다르다(Tedeschi & Calhoun, 2004). 그중 방어는 PTG로 나아가는 과정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 중 하나다. 이는 의식에 들어온 위협적 정보를 덜 위협적인 것으로 처리해(Barrett, Williams, & Fong, 2002) 심리적 균형을 유지한다는 기능에서(Hong & Ha, 2020) 외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외상을 경험한 이들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파국적인 변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Chung, Symons, Gilliam, Kaminski, 2018; Unthank, 2019).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상 이후 방어적 과정 자체가 꼭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순 없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외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어는 그것이 현실에 대한 왜곡이나 회피일지라도 오히려 적응적이고 통합된 자기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곽재석, 권선중, 김예나, 2022; Barrett et al., 2002). 이렇듯 단기적으로는 방어기제의 사용이 외상 경험에서 해리와 같은 고통스러운 기억과 무력감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오유미, 이민규, 2021; Harter, 1999).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성적인 방어로 자기개념을 고수하려 한다면, 외부 환경에 부적응적이고 취약성을 형성할 수 있다(Barrett et al., 2002). 이는 방어가 경험을 의식하지 않으려는 영향으로 기억을 재구성하는 데 실패하고, 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안현의 등, 2009; 오유미, 이민규, 2021). 종합해보면, 외상 경험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어로 인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고, 그렇다면 방어의 적응적 기능성으로 (Hong & Ha, 2020; Vaillant, 1975), 외상 초기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의도적 반추와 같은 노력이 이뤄졌을 때 PTG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정해볼 수 있다.

과연 그것이 진짜 PTG인지 의문이 남지만 이러한 PTG의 진위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다(Boals & Schuler, 2018; Boerner, Joseph, & Murphy, 2017; Pat Horenczyk et al., 2015; Sumalla, Ochoa, & Blanco, 2009). 즉, 자기보고된 PTG는 건설적(실제)일 수 있고, 방어로 인한 착각일 수 있다는 관점이었다. 그중 한 진영은 자기보고된 PTG는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며, 트라우마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방어가 증가한 것으로 보았다(Davis & McKearney, 2003; Hall, Hobfoll, Canetti, Johnson, & Galea, 2009; McFarland & Buehler, 2012). Boerner 등(2017)은 이러한 두 측면을 설명하고자 방어 양식(Vaillant, 1995)과 방어의 처리와 성장(Rogers, 1959)에 대한 관점을 통합해 미성숙하고 신경증적인 방어는 실제 PTG의 발달을 방해하고, 성숙한 방어는 건설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결국 PTG는 착각에 불과하며, 방어적 과정을 반영한다는 주장은 계속돼오고 있다(Boerner, Joseph, & Murphy, 2020).

PTG가 실제하는가의 문제는 외상을 경험하고 난 뒤 실제적 변화의 결과로 보는 ‘대처 결과’ 관점(Tedeschi & Calhoun, 1996)과 외상을 극복하는 과정 속 왜곡이나 자기기만, 긍정적 착각과 같은 ‘대처 전략’으로 보는 관점(Taylor & Armor, 1996), 마지막으로 두 관점의 절충인 ‘야누스의 얼

굴(Janus-face) 모델’(Maercker & Zoellner, 2004)로 이해할 수 있다. 즉, PTG는 건설적이면서 기능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역기능적이면서 긍정적 착각과 같은 측면도 분명 공존한다. 절충 모델에 따르면 외상 초기에는 대처 전략으로 착각적 측면의 비중이 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적 성격이 커지는 복합적인 개념인 셈이다(김지경, 장현아, 2014).

한편, 방어와 PTG의 관계에서 PTG를 촉진하는 변인인 의도적 반추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Tedeschi & Calhoun, 2004). 외상 사건은 인생 전반에서 형성한 신념체계와 내적 도식을 뒤흔들고 파괴하기 때문에 기존의 도식이 파괴되면 개인은 도식을 재구성하고 고통을 다루기 위해 반추하게 된다(김진목, 이희경, 2016). 초기 반추는 침습적이고 자동적인 특징을 갖지만, 점차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와의 상호작용으로 정서적 고통이 감소하고 의도적 반추로 나아가면서 PTG를 경험한다(박지은, 정남운, 2016).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다루려는 능력이 PTG와 관련된다는 점이다(박모란, 유성은, 2014). 즉, 외상을 극복한다는 건 과거를 현재와 분리하고, 외상으로 발생한 방어와 고통스러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Allen, 2005; Bateman & Fonagy, 2012).

야누스의 얼굴 모델에 근거하면, 외상 초기에는 의도적 반추를 통해 PTG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방어적 과정이 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형태를 가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처 전략으로써 자기보호 기제로 작동하는 방어 과정을 신뢰롭게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광재석 등(2022)은

방어적 언어 척도(Defensive Verbal Scale: DVS)를 개발했는데, 방어적 언어는 ‘위협적 정보로부터 자기개념의 유지와 보호하기 위해 알아차림을 방해하거나 왜곡을 일으키는 자기 기만적 말하기’로 정의된다. 즉, 외상 경험 후 자기 보호를 위해 방어적 말하기를 사용함으로써 인식을 저해하고 경험을 왜곡하는 방어적 언어를 측정한다면, PTG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방어를 포착하기에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어적 언어는 심리적 변인이기보다 자기개념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 기능이 작동되어 외현적 징후로써 나타난 행동이다(곽재석 등, 2022). 따라서 특정 방어 유형에 얽매이지 않고, 의식 밖에서 이뤄지는 방어의 흔적을 보다 신뢰롭게 포착할 수 있어 방어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도구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PTG를 이해하기 위한 세 모델 중 야누스의 얼굴 모델에 근거하여 제안된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러나 PTG의 실제적 측면과 착각적 측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재해 외상 이후 개인의 의식적 노력인 의도적 반추와 특성으로써 안정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방어 수준과 상호작용했을 때 조절 효과가 유의하게 나올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의도적 반추가 PTG에 미치는 영향에서 방어적 언어가 일반적으로 어떤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한 뒤 주요 시점별로 구분해 방어적 언어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모델로서 제안된 PTG의 양면성을 검증하여 그 실체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다면, PTG의 임상 및 개입에 체계적인 실천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PTG로 나아가는 데 있어 방어적 과정의 기능성을 이해하는 것은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상담적 개입을 위한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참여자는 대전 소재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에 응한 326명 중 외상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53명과 외상 경험에 대한 지각된 고통 수준이 4점(보통) 미만인 응답자 25명, 무응답 및 결측값이 있는 3명을 제외해 최종 분석 대상자는 245명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표 1과 같이 여성 178명(72.7%), 남성 67명(27.3%)이며, 연령 범위는 만 17~53세 ($M=21.8$, $SD=4.357$)로 17-19세 48명(19.6%), 20-21세 101명(41.2%), 22-23세 57명(23.3%), 24세 이상 39명(15.9%)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45명(18.4%), 2학년 53명(21.6%), 3학년 100명(40.8%), 4학년 47명(19.2%)이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n=245$)

구 분	내 용	인원수	비율(%)
성 별	남성	67	27.3
	여성	178	72.7
	총계	245	100
연 령	17-19세	48	19.6
	20-21세	101	41.2
	22-23세	57	23.3
	24세 이상	39	15.9
	총계	245	100
학 년	1학년	45	18.4
	2학년	53	21.6
	3학년	100	40.8
	4학년	47	19.2
	총계	245	100

측정 도구

외상 경험.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주요 외상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송승훈(2006)의 외상 경험 스케줄에 제시된 외상 사건 목록을 바탕으로 이수림(2013)이 16개로 수정·보완한 버전에 ‘외상 사건 없음’을 포함하여 총 17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선택하도록 한 뒤 임하진(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외상 사건이 발생 시기(1=한 달 이내~8=20년 이상 경과)와 사건 당시 연령(1=취학 이전~6=20대 후반 이후)을 점검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건 당시와 현재의 주관적 고통 수준을 7점 척도(1=고통스럽지 않았음, 7=매우 고통스러웠음)로 응답하게 하였다.

방어적 언어 척도. 광재석 등(2022)이 개발한 방어적 언어 척도(Defensive Verbal Scale: DVS)는 ‘위협적 정보로부터 자기개념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해 알아차림을 방해하거나 왜곡을 일으키는 자기-기만적 말하기’의 정도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도구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0=아니다, 1=가끔 그렇다, 2=자주 그렇다, 3=항상 그렇다)로 총 10문항이며, 분노나 고통스러운 경험이 떠오른 상황과 반복된 실수나 잘못에 부정적 평가를 받는 상황이 지시문으로 제시되고, 전자는 ‘주변에 말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와 같은 내용이, 후자는 ‘내 잘못이라고만 할 순 없어’와 같은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총점이 높을수록 방어적 언어의 사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원문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866이었고, 본 연구는 .791로 나타났다.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 의도적 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Cann 등(2011)이 개발한 사건 관련 반추척도(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ERRI)를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선(2013)이 국내 대학생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0=아니다, 1=가끔 그렇다, 2=그렇다, 3=자주 그렇다)이며,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2요인 구조로 요인별 10문항씩 총 20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일로부터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떤 것을 배웠는가에 대해 생각해본다’와 같은 내용의 의도적 반추 10문항을 추출해 사용하였다.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안현의 등(2013)의 연구는 .950이었고, 본 연구는 .941로 나타났다.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 확장판. 외상 후 성장의 측정은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외상 후 성장 척도(PTGI)를 Tedeschi, Cann, Taku, Senol-Durak와 Calhoun(2017)이 ‘실존적 깊이의 증가’와 ‘영적·종교적 깊이의 증가’를 통합해 개정한 외상 후 성장 척도 확장판(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X: PTGI-X)의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김시형, 임수정, 신지영, 이덕희, 이동훈, 2020). 하위요인은 자기 지각의 변화(8문항),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5문항), 영적·실존적 깊이 증가(7문항), 새로운 가능성의 발전(5문항)으로 구성되며, 외상 경험 이후 긍정적인 변화에 동의하는 정도를 6점 Likert 척도(0=전혀 경험하지 못함~5=매우 많이 경험)로 응답한다. 내적일관성 계수는 김시형 등(2020)의 연구는 .9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9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대전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안내문과 구두로 살면서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경험들에 관한 질문으로 이뤄진 설문이며, 외상 경험과 외상 이후의 변화를 주제로 한 연구임을 안내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에게 설문을 배포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안내는 앞면에 제시해 이를 읽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안내한 뒤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였다. 먼저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도를 살핀 뒤 연구 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년, 외상 경험에 대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그다음 방어적 언어, 의도적 반추, PTG 간 상관분석과 함께 외상 경험 이후 시점을 네 시점으로 구분하여 시점별 상호상관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외상을 경험한 대학생의 의도적 반추가 PTG에 미치는 영향에서 방어적 언어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Andrew F. Hayes의 PROCESS macro v3.41을 활용하였다.

조절 효과 분석은 변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균값으로 처리해 중심화(centering)를 거친 뒤 방어적 언어의 일반적인 조절효과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다음 PTG가 대략 18개월~2년 이후부터 심리신체적 적응과 강한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시기를 네 시점으로 구분해 각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시점 구분은 시점1은 '한 달 이내'부터 '7개월~1년 이내'까지, 시점2는 '1~2년 전'부터 '2~3년 전'까지, 시점3은 '3~10년 전', 시점4는 '10~20년 전'부터 '20년 이상 경과'로 구분했다.

결과

외상 사건의 유형

외상 사건 유형의 응답 결과는 표 2와 같다. 대인관계 파탄(이별, 절교 등)이 48명(19.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인관계 적응 문제(따돌림, 괴롭힘)가 45명(18.4%), 사랑하는 이의 사망(배우자 등)이 29명(11.8%), 가족 및 가까운 이의 질병이 27명(11.0%), 학업 및 성취 관련(낙방, 실패 등)이 24명(9.8%), 재정적 어려움(부도, 파산 등)이 13명

표 2 연구참여자의 외상 경험 시기 및 사건 유형

		구분	빈도	비율
외상 경험 시기	시점 1	한 달 이내	8	3.3
		1~6개월 이내	22	9.0
		7~12개월 이내	19	7.8
	시점 2	1~2년 전	25	10.2
		2~3년 전	25	10.2
시점 3	3~10년 전	113	46.1	
시점 4	10~20년 전	30	12.2	
		20년 이상 경과	3	1.2
		합계	245	100.0
외상 유형	사고/상해 (교통사고, 화재 등)		11	4.5
	자연재해 (홍수, 지진 등)		-	-
	본인의 심각한 질병 (예, 암 등)		5	2.0
	가족 및 가까운 이의 질병		27	11.0
	사랑하는 이의 사망 (배우자 등)		29	11.8
	학업 및 성취 관련 (낙방, 실패 등)		24	9.8
	실직, 구직 실패		1	.4
	재정적 어려움 (부도, 파산 등)		13	5.3
	범죄 피해 (강도, 폭행 등)		2	.8
	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		5	2.0
	이혼 및 별거 (본인 또는 부모)		8	3.3
	배신 충격 (사기, 외도 등)		7	2.9
	대인관계 파탄 (이별, 절교 등)		48	19.6
	대인관계 적응문제 (따돌림, 괴롭힘)		45	18.4
	어린 시절의 학대 받은 경험		11	4.5
기타		9	3.7	
		합계	245	100.0

(5.3%)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상해(교통사고, 화재 등), 어린 시절의 학대 받은 경험, 이혼 및 별거(본인 또는 부모님), 배신 충격(사기, 외도 등) 등은 5% 미만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으며, 자연재해(홍수, 지진 등)는 0명이었다. 기타 외상 사건은 9명으로, ‘범죄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 ‘가정에서의 관계 문제’, ‘부모님과 심각한 다툼’ 등이 있었다. 그 밖에 개인이 외상 당시 지각한 고통 수준은 평균 5.93점(7점 likert, $SD=0.863$)이었으며, 최근 외상 사건으로 인한 고통 수준은 평균 3.78점(7점 likert, $SD=1.702$)이었다. 외상 경험 시기는 ‘3-10년 전’이 113명(46.1%)으로 가장 많았고, ‘1-3년 전’ 50명(20.4%), ‘1년 전’ 49명(20.1%), ‘10년 이상’ 33명(13.4%)으로 뒤따랐다.

주요 변인 간 상호상관 분석

외상을 경험한 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 의도적 반추, 방어적 언어 간의 관계는 표 3과 같다. 먼저 외상 후 성장과 의도적 반추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r=.340, p<.001$)이었으며, 1~3시점까지도 같은

양상이었다. 외상 후 성장과 방어적 언어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r=-.144, p<.05$)을 보였고, 다른 시점들에서는 유의하진 않지만, 관계 방향은 부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의도적 반추와 방어적 언어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r=.177, p<.01$)이었고 시점3을 제외하고는($r=.240, p<.05$) 다른 시점들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방어적 언어의 조절 효과

외상을 경험한 대학생의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방어적 언어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Process Macro에서 분석 모델은 model 1로 선택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은 10,000회로 지정한 뒤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표 3에서 시점과 관계없이 의도적 반추($B=13.682, p<.001$)와 방어적 언어($B=-1.296, p<.001$)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했으나 의도적 반추와 방어적 언어의 상호작용은 PTG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외상 후 성장, 의도적 반추, 방어적 언어 간 상관 및 기술통계 결과

시점	전체($n=245$)			1($n=49$)			2($n=50$)			3($n=113$)			4($n=3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2	.340***			.604***			.350*			.236*			.275		
3	-.144*	.177**		-.197	.094		-.040	.105		-.126	.240*		-.216	.147	
<i>M</i>	64.812	13.322	7.971	68.102	15.653	8.959	66.960	12.920	6.440	63.336	12.540	7.982	61.727	13.152	8.788
<i>SD</i>	31.713	8.652	5.079	33.311	8.154	5.748	29.619	9.207	4.166	31.079	8.592	4.906	35.199	8.497	5.521
왜도	-.199	.129	.871	-.390	.001	1.030	-.270	.167	1.025	-.157	.241	.460	.013	.002	1.186
첨도	-.938	-1.013	.913	-.956	-.870	1.136	-.611	-1.183	1.373	-.884	-.935	-.212	-1.213	-.998	1.962

주. 1. 외상 후 성장, 2. 의도적 반추, 3. 방어적 언어

* $p<.05$, ** $p<.01$, *** $p<.001$.

표 4.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에서 방어적 언어의 조절 효과

외상 시점	경로	<i>B</i>	<i>SE</i>	<i>t</i>	<i>LLCI</i>	<i>ULCI</i>	<i>R</i> ² (ΔR^2)	<i>F</i> (<i>df</i> , <i>df</i>)
전체	의도적 반추(X)	13.682	2.213	6.184***	9.323	18.040	.399 (.159)	15.229*** (3,241)
	방어적 언어(W)	-1.296	.376	-3.447***	-2.037	-.556		
	X×W	-.231	.407	-.566	-1.033	.572		
시점1 (<i>n</i> =49)	의도적 반추(X)	26.294	4.182	6.288***	17.872	34.717	.730 (.534)	17.173*** (3,45)
	방어적 언어(W)	-1.774	.600	-2.960**	-2.982	-.567		
	X×W	2.355	.745	3.161**	.854	3.856		
시점2 (<i>n</i> =50)	의도적 반추(X)	10.160	4.321	2.351*	1.462	18.859	.447 (.200)	3.826* (3,46)
	방어적 언어(W)	-.796	.951	-.838	-2.710	1.117		
	X×W	-2.157	1.069	-2.018*	-4.309	-.005		
시점3 (<i>n</i> =113)	의도적 반추(X)	9.990	3.358	2.975**	3.335	16.645	.341 (.116)	4.791** (3,109)
	방어적 언어(W)	-1.240	.588	-2.110*	-2.404	-.075		
	X×W	-1.091	.620	-1.762	-2.319	.136		
시점4 (<i>n</i> =33)	의도적 반추(X)	13.054	7.312	1.785	-1.901	28.010	.378 (.143)	1.610 (3,29)
	방어적 언어(W)	-1.682	1.146	-1.468	-4.026	.662		
	X×W	.061	1.238	.049	-2.472	2.594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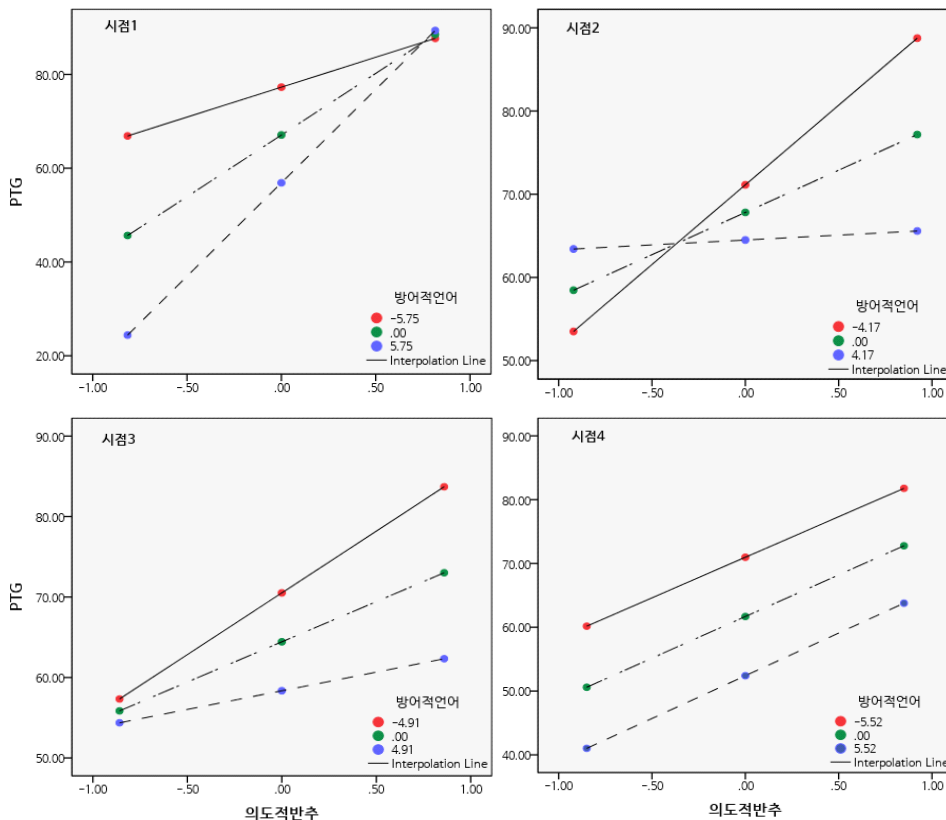


그림 1. 시점별 방어적 언어의 조건부 효과 그래프

일반적으로는 방어적 언어의 조절 효과를 확인할 순 없었으나, 이를 외상 시점별로 구분하자 야누스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의도적 반추와 PTG와의 관계성이 방어적 언어의 조절효과로 인해 '시점1'(B=2.355, p<.01)에서 '시점2'(B=-2.157, p<.05)로 가면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시점3'과 '시점4'에서는 조절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외상 시점별로 방어적 언어를 ±1SD로 구분해 그린 그래프이다.

참고로, 외상 시점 또한 분석 모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과 방법론적으로 유의성이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는 점, 그리고 구분한 시점별로 모형의 공선성이 다르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상 시점을 본래 연속변인 형태로 투입해 model 3으로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추가 분석하였다. 표 5의 분석 결과, 외상 시점에 따른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727, p<.01). 그림 2는 외상 시점을 ±1SD로 나누고 세 수준 안에서 방어적 언어를 ±1SD로 구분해 그린 조건부 효과 그래프이다. 이를 보면, 외상 초기일 때 (-1SD) 의도적 반추가 높을수록 방어적 언어 수준도 높은 집단(+1SD)의 기울기가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시점이 중장기로 갈수록 (+1SD) 의도적 반추가 높아도 방어적 언어가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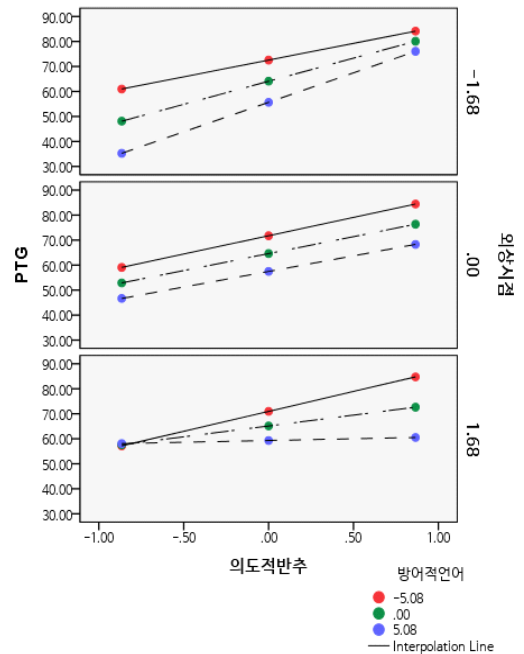


그림 2. 외상 시점에 따른 조건부 효과 그래프

으면(+1SD) PTG 수준이 방어적 언어가 낮은 집단(-1SD)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두 분석 결과가 야누스 모델의 착각적, 실제적 측면을 잘 반영하나 앞선 시점별로 구분한 분석 결과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방향이므로 삼원상호작용효과의 결과는 추가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바이다.

표 5.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에서 시점에 따른 방어적 언어의 조절된 조절효과

경로	B	SE	t	p	LLCI	ULCI
의도적 반추(X)×방어적 언어(W)	-.214	.403	-.530	.596	-1.007	.580
의도적 반추(X)×외상 시점(Z)	-2.924	1.309	-2.234*	.026	-5.504	-.345
W×Z	.154	.218	.705	.482	-.276	.584
X×W×Z	-.727	.249	-2.920**	.004	-1.217	-.237

*p<.05, **p<.01, ***p<.001.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PTG의 건설(실제)적 및 착각적 측면이 공존함을 이야기한 야누스의 얼굴 모델에 근거해 의도적 반추가 PTG에 미치는 영향에서 방어적 언어의 조절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모델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PTG와 의도적 반추, 방어적 언어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PTG와 의도적 반추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PTG와 의도적 반추가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곽아름, 박기환, 2018; 신준희, 김영근, 2021; Tedeschi & Calhoun, 2004). 그다음 PTG와 방어적 언어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의도적 반추와 방어적 언어는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방어가 착각적 PTG로 이어질 수 있는 인지 편향으로 검토된 바 있는데(Gower, Pham, Jouriles, Rosenfield, Bowen, 2022), 이는 방어가 현실을 왜곡하여 자기를 긍정적으로 과장해 인식하려는 인지 편향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결과는 방어적 언어가 높을수록 부정적 경험을 인식 밖으로 차단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착각적 측면이 강해져 의도적 반추의 노력에도 PTG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의도적 반추가 PTG에 미치는 영향에서 방어적 언어의 조절 효과는 외상 경험 이후의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외상 초기에는 착각적 측면으로써 자기 보호를 위한 방어적 언어가 의도적 반추와 함께 PTG를 촉진하는 형태를 보이다가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서 의도적 반추의 노력에도 방어적 언어가 PTG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후 영향력이 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외상 초기 PTG를 촉진하는 결과는 대처 전략 모델로서 외상 초기에 부정적 정서와 인지로 인해 자기개념에 위협적인 정보를 처리하고자 이를 왜곡하고, 긍정적 착각과 같은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모델과 부합한다(Taylor & Armor, 1996). 또한 이러한 형태는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기제로 방어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Davis & McKeamey, 2003; Hall et al., 2009; Hobfoll et al., 2007; McFarland & Buehler, 2012). 즉, PTG가 허상이라는 주장들 속에 PTG가 방어를 반영한다는 결과들을(Boerner et al., 2017, 2020) 본 연구의 결과가 입증했다고 할 수 있겠다.

외상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의도적 반추와 방어적 언어의 상호작용이 PTG를 저해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이후 조절 효과가 사라지는 결과는 PTG를 ‘대처 결과’로 보는 관점(Tedeschi & Calhoun, 1996)과 더불어 야누스의 얼굴(Janus-face) 모델(Maercker & Zoellner, 2004; Zoellner & Maercker, 2006)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김지경과 장현아(2014)의 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 외상 초기 착각적 측면의 비중이 크다가 점차 적응적 성격이 커지면서 건설적인 측면을 보이게 된다는 이해와 일치된 결과이다.

연구 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PTG의 야누스 얼굴 모델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TG를 외상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볼 것이나,

실제적인 변화의 결과로 볼 것이냐라는 복잡성으로 인해 PTG가 실제하는가에 관한 주제는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이는 PTG를 포착하고 측정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만약 PTG를 포착하지 못하면 기존에 제안된 임상 및 개입이 PTG를 촉진한다는 증거(Roepke, Tsukayama, Forgeard, Blackie, & Jayawickreme, 2018)를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Gower et al., 2022). 또한 PTG의 실제적 측면과 착각적 측면으로 인한 연구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을 당시(이양자, 정남운, 2008; Frazier, Conlon, & Glaser, 2001; Fredrickson, Tugade, Waugh, & Larkin, 2003) PTG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교통정리가 필요했다. 그렇게 나온 야누스의 얼굴 모델(2요인 모델)은 종단 연구에서나 PTG와 적응의 정적 상관이 어느 정도 유의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며 모델의 타당성을 다져가는 정도였다(Davis, Nolen-Hoeksema, & Larson, 1998; Frazier, Conlon, & Glaser, 2001). 즉, 모델에 대한 약한 지지만 얻거나(Jones, 2010), 간접적인 증거를 얻는 정도(Zoellner & Maercker, 2006; Boals & Liu, 2020)일 뿐 모델 그 자체로써 검증한 연구는 없었는데 본 연구가 야누스의 얼굴 모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험적 연구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PTG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연구가 국내외에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유는 이 방어적 현상을 어떻게 포착하고 측정하느냐의 문제였다. 국외에서 방어기제의 성숙도로 조절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있으나 PTG가 실제 변화보다 방어 과정을 반영하는 결과라는 결론을 내린 Boerner 등(2017)의 연구가 전부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어적 언어 척도는 기존의 방어기제 측정 도구와 다르게 위협적 정보로부터 자기개념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 기능이 작동하여 나타난 자기-기만적 말하기를 측정하는 도구다(곽재석 등, 2022). 따라서 방어적 언어가 PTG의 양면성에서 드러나는 방어적 과정을 잘 반영하는 개념이며, PTG의 양면성을 살펴보는 데 적합한 도구라는 측면에서 활용성을 입증했다는 의의가 있다. 더불어 그 활용성을 통해 향후 PTG의 양면성에 관한 후속 연구를 촉진하는 데 본 연구가 학술적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PTG에 대한 임상 및 상담 장면의 개입에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개입을 제안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가 PTG로 나아가는 데 있어 방어적 과정의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다졌다고 할 수 있다. 외상 초기에 나타나는 방어적 과정은 부적응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외상에 대처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며 기능성이므로 이해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방어로 인해 의도적 반추의 노력에도 PTG를 저해하는데, 특히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러한 양상이 관찰되므로 이 시기를 정신건강에 취약한 시점이자 예방적 개입이 중요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만약 외상 이후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방어 수준이 높다면, 제3세대 인지치료로써 알아차림과 수용을 핵심으로 하는 마음챙김 및 수용전념치료를 통해 방어로 인한 경험 회피에 초점을 두고 변화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의도적 반추가 PTG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상 시점에 따른 방어적 언어

의 조절 효과를 횡단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따라서 외상 초기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수준이 높았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PTG를 저해하는 영향을 미치는가는 단일 시점에 측정하여 분석하기보다 종단 연구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에는 종단 연구를 통해 PTG의 양면성에서 방어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후 실제적인 상담 및 임상적 개입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곽아름, 박기환 (2018).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고통제방략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4(1), 69-89.
- 곽재석, 권선중, 김예나 (2022). 방어적 언어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1(1), 63-80.
- 김시형, 임수정, 신지영, 이덕희, 이동훈 (2020). 외상 후 성장 척도 확장판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Expanded: PTGI-X)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3), 195-220.
- 김지경, 장현아 (2014). 외상 후 성장 연구의 국내 동향과 과제. *인지행동치료*, 14(2), 239-265.
- 김진목, 이희경 (2016). 침투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외상 후 성장의 관계: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6), 165-182.
- 박모란, 유성은 (2014). 외상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다차원적 경험회피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인지행동치료*, 14(3), 435-453.
- 박지은, 정남운 (2016). 외상후 부정적 인지와 외상후 성장의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효과: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를 중심으로. *인간이해*, 37(2), 167-185.
- 송승훈 (2007).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의 신뢰도와 타당도. *충남대학교 국내석사학위논문*.
- 신준희, 김영근 (2021). 침습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기노출, 정서조절능력 및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 323-343.
- 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자기체계의 손상으로 본 복합외상증후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283-301.
-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선 (2013).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K-ERRD)의 타당화. *인지행동치료*, 13(1), 149-172.
- 오유미, 이민규 (2021). 아동·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과 성인기 대인외상의 관계: 해리경험, 관계중독,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스트레스연구*, 29(1), 1-10.
- 이양자, 정남운 (2008). 외상후 성장에 대한 연구 개관: 적응과의 관계 및 치료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1-23.
- 이수림 (2013). 외상 유형이 외상 후 성장 및 지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319-341.
- 임하진 (2021). 대학생의 대인외상경험과 대인관계문제가 심리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상원, 한창수, 최준호, 배치운, 채정호, 고영훈, 윤호경, 한창우 (2015). 외상후 성장 및 리질리언스 평가와 임상적 의의. *신경정신의학*, 54(1), 32-39.
- Allen, J. G. (2005). *Attachment in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2n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c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rrett, L. F., Williams, N. L., & Fong, G. T. (2002). Defensive verbal behavior assessment.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6), 776-788.
- Bateman, A., & Fonagy, P. (2012). *Handbook of mentalizing in mental health practi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
- Boals, A., & Liu, K. (2020). Illusory reports of posttraumatic growth in response to a nontraumatic event. *Journal of Loss and Trauma*, 25(1), 74-85.
- Boals, A., & Schuler, K. L. (2018). Reducing reports of illusory posttraumatic growth: A revised version of the Stress-Related Growth Scale (SRGS-R).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0(2), 190.
- Boerner, M., Joseph, S., & Murphy, D. (2017). A theory on reports of constructive (real) and illusory posttraumatic growth.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60(3), 384-399.
- Boerner, M., Joseph, S., & Murphy, D. (2020). Is the association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posttraumatic growth moderated by defense styles? *Traumatology*. Advance online publication.
- Breslau, N., Davis, G. C., Andreski, P., & Peterson, E. (1991).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urban population of young adul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8(3), 216-222.
- Calhoun, L. G., & Tedeschi, R. G. (1999). *Facilitating posttraumatic growth: A clinician's guid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Triplett, K. L., Vishnevsky, T., & Lindstorm, C. M. (2011). Assessing posttraumatic cognitive processes: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Anxiety, Stress & Coping*, 24(2), 137-156.
- Chung, M. C., Symons, C., Gilliam, J., & Kaminski, E. R. (2018).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emotional suppression and psychiatric co-morbidity in patients with chronic idiopathic urticaria: a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Journal of Mental Health*, 27(5), 442-449.
- Davis, C. G., & McKearney, J. M. (2003). How do people grow from their experience with trauma or lo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2(5), 477.
- Davis, C. G., Nolen-Hoeksema, S., & Larson, J. (1998). Making sense of loss and benefiting from the experience: two construals of mea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61.
- Frazier, P., Conlon, A., & Glaser, T. (2001). Positive and negative life changes following sexual assaul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6), 1048.
- Fredrickson, B. L., Tugade, M. M., Waugh, C. E., & Larkin, G. R. (2003).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in crisis? A prospective study of resilience and emotions following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th, 2001.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365.
- Gower, T., Pham, J., Jouriles, E. N., Rosenfield, D., & Bowen, H. J. (2022). Cognitive biases in percep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94(2022), 102159. doi.org/10.1016/j.cpr.2022.102159
- Hall, B. J., Hobfoll, S. E., Canetti, D., Johnson, R. J., & Galea, S. (2009). The defensive nature of benefit finding during ongoing terrorism: An examination of a national sample of Israeli Jew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8(8), 993.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ong, S. M., & Ha, J. H. (2020).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of Defense Mechanisms. *Psychoanalysis*, 38(1), 1-10.
- Ickovics, J. R., Meade, C. S., Kershaw, T. S., Milan, S., Lewis, J. B., & Ethier, K. A. (2006). Urban teens: Trauma, posttraumatic growth, and emotional distress among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5), 841.
- Jones, D. R. (2010). *The two sides of posttraumatic growth: a study of the Janus Face Model in a college population*. The University of Toledo. Doctor of Philosophy thesis. United States
- Kessler, R. C., Sonnega, A., Bromet, E., & Hughes, M. (1995).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2(12), 1048-1060.
- Maercker, A., & Zoellner, T. (2004). The Janus face of self-perceived growth: Toward a two-component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l Inquiry*, 15(1), 41-48.
- McFarland, C., & Buehler, R. (2012). Negative moods and the motivated remembering of past selves: The role of implicit theories of personal st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2), 242.
- Pat Horenczyk, R., Perry, S., Hamama Raz, Y., Ziv, Y., Schramm Yavin, S., & Stemmer, S. M. (2015). Posttraumatic growth in breast cancer survivors: Constructive and illusory aspect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8(3), 214-222.
- Roepke, A. M., Tsukayama, E., Forgeard, M., Blackie, L., & Jayawickreme, E. (2018).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Second Story, an intervention targeting posttraumatic growth, with bereaved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6(6), 518.
- Rogers, C. R.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In S. Koch (Ed.), *Psychology: A study of science: Vol. 3 Formulation of the person and the social context* (pp. 184 - 256). New York, NY: McGraw-Hill.
- Sumalla, E. C., Ochoa, C., & Blanco, I. (2009). Posttraumatic growth in cancer: reality or illu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1), 24-33.
- Taylor, S. E., & Armor, D. A. (1996). Positive illusions and coping with adversity. *Journal of Personality*, 64(4), 873-898.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Tedeschi, R. G., Cann, A., Taku, K., Senol Durak, E., & Calhoun, L. G. (2017).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A revision integrating existential and spiritual chang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0(1), 11-18.
- Unthank, K. W. (2019). How self-blame empowers and disempowers survivors of interpersonal trauma: An intuitive inquiry. *Qualitative Psychology*, 6(3), 359.
- Vaillant, G. E. (1975). Natural history of male psychological health: III. Empirical dimensions of mental health.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2(4), 420-426.
- Vaillant, G. E. (1995). *The wisdom of the ego*. Bost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Zoellner, T., & Maercker, A. (2006).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sychology: A critical review and introduction of a two component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5), 626-653.

원고접수일: 2022년 11월 8일

논문심사일: 2023년 1월 31일

게재결정일: 2023년 2월 24일

Silence in a Storm, and a Storm in Silence: The Moderating Effect of Defensive Verb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berate Rumination among College Students with Trauma Exper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Jae Seok Kwak Hyeong Jun Kim Sun Jung Kwon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defensive verb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berate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based on the Janus face model of self-perceived growth.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45 students of K university, and trauma experience, defensive verbal, deliberate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were measured. For the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and the time of experiencing the trauma event was divided into four point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defensive verbal on the effect of deliberate rumination on post-traumatic growth: point 1 ('within one month'~'within seven months to one year'), point 2 ('one to two years ago'~'two to three years ago'), point 3 (3 to 10 years ago), and point 4 ('10 to 20 years ago'~'more than 20 years ago').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t point 1, deliberate rumination showed a pattern of promoting post-traumatic growth as the moderating effect of defensive verbal; but at point 2, the moderating effect of defensive verbal was found to hinder post-traumatic growth. At points 3 and 4, the moderating effect of defensive verbal was not confirmed. These results reflected the Janus face model of self-perceived growth; in the early stages of trauma, a large proportion of illusory (defensive) aspects of post-traumatic growth, such as distortion and self-deception, was shown, whereas the adoptive character grew over time.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post-traumatic growth, deliberate rumination, defensive verbal, the Janus face model